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2월 12일(주일) 제1372호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

12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오전 6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이재훈, 강동진, 이주연 목사, 김규철 대표, 천종호 판사 등 메시지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드디어 막 오른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기도의 장(場)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12월 13일(월)부터 2022년 1월 21일(금)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6시에 진행된다. 예배당 예배, 영상 예배(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CGNTV)로 참여하면 된다. 오전 5시 30분부터 기도과 찬양이 이어지고, 6시부터 새벽기도회 실황이 중계된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주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소명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낸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 김규철 대표(NIBC, 12월 24일), 강동진 목사(보나콤공동체, 12월 27일), 천종호 판사(12월 29일), 노규석 목사(12월 30일), 이주연 목사(12월 31일), 박종길 목사(1월 3일, 10일), 이상준 목사(1월 5일, 12일), 이기원 목사(1월

7일), 이기훈 목사(1월 14일)가 전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캠퍼스 순회 설교를 한다. 수원 12월 16일, 대전 12월 21일, 남양주 12월 23일, 평택 12월 28일, 인천 1월 4일, 강동 1월 6일, 양지 1월 11일, 안산 1월 13일, 부천 1월 18일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말씀과 중보기도에 힘쓰도록 돕는다. 교회에서 순장들에게 매일 문자메시지로 새벽기도회 메시지, 중보기도제목 등을 발송하면, 순장이 순 단체 채팅방에서 순원들에게 나눈다. 순원들은 새벽기도회 은혜를 ‘한 줄 기도문’을 작성해서 나누고 중보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장규환 장로(선교재단)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철저한 방역에 더욱 신경쓰고, 성도들이 새벽에 교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크리스마스 콘서트 ‘The Gift’

12월 25일 서빙고, 양재온누리교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The Gift’가 12월 25일(토) 열린다. 예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움츠린 성도들을 위로하는 축제다. 믿지 않는 가족을 초청해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3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예배당 예배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로 참여하면 된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게스트가 풍성하다. 서빙고온누리교회는 오미희 권사(배우)가 사회를 보고, 미스터 브라스, 소프라노 김영미, 방송인 김영우, 남성합창단, 더블레싱, 교역자 특순팀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양재온누리교회에서는 가수 주영훈이 진행하고, 윤형주 장로, 크룩스, 남성합창단, 소프라노 신델라, 브라스밴드, 나인티스틱, 교역자 특순팀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는 ‘온팡(Onpang)’을 주제로 성탄예배를 드린다. 12월 26일 오후 7시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된다.

이날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인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한다.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색소폰 이광재, 뮤지컬배우 양준모, 이충주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메시지는 조준목 목사(열린새신자예배 담당)가 전한다. 참가신청은 QR 코드나 열린새신자예배에서 나눠주는 초대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초대자 기도모임도 한다. 12월 16일(목)과 23일(목)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기도모임을 한다. 참가신청한 성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링크를 보내준다.

문의: 02-3215-3177



열린새신자예배
‘온팡(Onpang)’

/ 정현주 기자

CGNTV 한국기독교언론대상 7년 연속 수상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땅 끝의 증인들-나는 섬 선교사입니다〉

CGNTV 다큐멘터리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과 〈땅 끝의 증인들-나는 섬 선교사입니다〉가 제13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에서 기독교문화부문 최우수상과 나눔기부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기독교문화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연출 유진주 PD)은 교회를 떠난 10대들의 진솔한 마음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나눔기부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땅 끝의 증인들-나는 섬 선교사입니다〉(연출 윤은영 PD)는 완도지역 33개 작은 섬마을에 있는 53개 교회와 지역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이정환, 신영삼 선교사 부부의 삶을 다뤘다. 수상작들은 CGNTV 웹사이트와 유튜브 CGNTV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부천온누리교회 창립 19주년

12월 12일(주일)은 부천온누리교회 창립 19주년이다.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오후 2시 부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연합찬양팀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케이크 커팅식 등이 이어진다.

윤길중 목사(부천온누리교회 담당)는 “부천온누리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성도의 우정이 깊어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자녀교육 Q&A “사춘기 자녀와 대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는 것이 곧 사랑이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성경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와의 갈등에서 가장 화나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들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늘 야단만 쳐요”, “우리 부모님은 벽이에요”, “아버지는 정답

만 이야기 하세요. 하지만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부모와 갈등을 겪는 아이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이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의논을 하느냐”고 질문했더니 “아버지와 의논한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1%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그런 생각 할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라”, “나는 네 나이에 뛰어가면서 공부했다.”,

나는 학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너보다 공부 잘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공부만 잘해 봐라. 여자들이 줄을 선다.”

부모들이 흔히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다. 아이들은 늘 정답만 이야기하면서 억박지르는 부모 곁을 떠나고 싶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말을 들어 주기를 원한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행위(공유)이고, 들어주는 것은

관심과 배려이자 사랑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말하는 내용보다 듣는 자세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속사정을 읽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맞장구치고 공감해주는 것이다. “그랬구나”, “아니 저런!”,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등 아이들 말에 계속 맞장구치고 공감해주면 아이들은 그 순간 온전히 부모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1분 동안 말하고, 2분 동안 듣고, 3분 동안 공감하라!”

부모가 아이들에게 귀 기울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누군가를 찾아 나설지도 모른다. 부모는 아이들의 아픔이나 감정, 생각과 꿈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절대로 중간에 말을 막거나 설교하는 투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또 대답할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기만 해도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냈을 때 놀라운 성취감을 맛본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적이다.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아이들이 겪은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격려하고, 잘 들어주면 아이들의 발표력과 창의성도 향상된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아이들도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주는 아이로 성장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말하는 것은 공유지만, 듣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아이들도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준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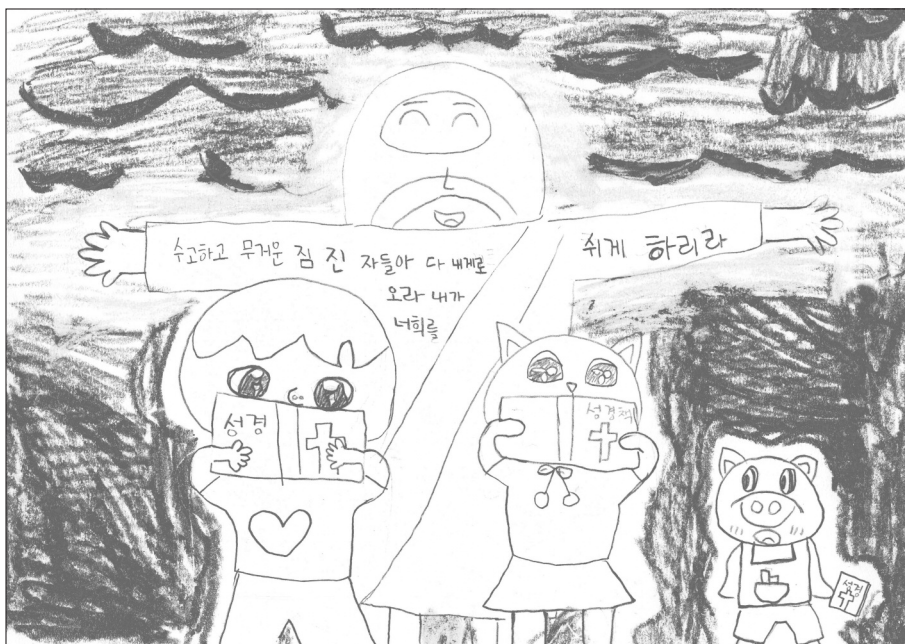
우리들 작품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트리에 장식품을 달았어요! 장식품을 직접 만드니까 재미있었어요!

/ 김하은, 김하준 어린이(서빙고온누리교회 차세대)



〈힘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쉬를 주세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심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 한해와 학생(강동온누리교회 꿈땅)

성경 QUIZ

출제범위: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

비유와 기적 2단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무엇인가요? 아래 문장을 읽고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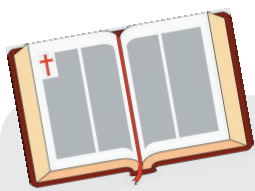
1. 예수님은 물로 (사과주 / 포도주 / 딸기주)를 만드셨어요.
2. 예수님이 하늘의 (떡 / 쌀 / 빵)을 주셨어요.
3. 예수님이 (불 / 바람 / 물) 위를 걸으셨어요.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1.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속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1절).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정치적, 제도적, 이념적 해방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율법, 사단의 권세 아래 종 되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옛사람을 함께 죽게 하고,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함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셨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떠올리면 하나의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끊임없이 무시하려 했습니까. 사도 시대부터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종교개혁의 진리를 드러냈을 때 에라스무스라는 당시 유명한 인문학자가 반박했습니다. 1524년 9월 <자유지의론>이라는 책을 써서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인간의 구원에 선한 행실과 자유의지가 참여하고,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노예의 지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비록 선한 행실일지라도 죄악의 분류를 벗어나지 못하며, 도리어 인간은 선한 행실을 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이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은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논쟁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는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그 주장들이 발표되고 반박하는 논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실일지라도 인간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제도적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정치적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수많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의 이면에서 인간이 얼마나 포로된 상태인지가 나타납니다. 사람들 스스로 자유롭다고 하지만 종의 상태이고, 자유가 주어져도 오히려 누리지도 못합니다. 중세 시대만 해도 개인의 자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철저한 신분 사회여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노예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근대로 들어서면서 자유가 주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말할하던 시대에 자유를 갈구하며 싸웠던 사람들이 정작 자유가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서 일어난 독재에 순응하고 지지했습니다.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져도 제대로 행사할 줄 모릅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왕정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 되신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 나라처럼 왕정 제도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 질서대로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세상의 질서대로 왕정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제도적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온갖 타락한 문화의 종이 되어서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종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 자유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멈출 수 있느냐입니다. 탐심과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다면 자유가 아닙니다. 종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노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선택으로 인해서 종, 노예, 포로가 됩니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선택의 자유로 인하여 사람들이 갇혀 있고, 의지가 자유를 잃어버린 종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포로 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와 사망, 율법 아래 사단의 종노릇 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려움 없는 양심의 자유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두려움 없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육체 활동이 멈추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세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자유합니다. 죄가 없다고 뻔뻔하게 여기는 양심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죄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어 끊임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근거 있게 공격하고, 근거가 없어도 공격합니다. 근거 없는 거짓으로도 공격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죄악을 공격합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 죄에 머물게 합니다. 생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양심이 공격을 받아 무너진 것입니다. 심한 죄책감, 두려움, 불안 등은 양심이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이념들은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 당당해. 사람들에게 미움받아도 돼”라고 말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이념과 사상은 인간의 양심을 달래주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함으로써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비시킴으로써 양심에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양심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잡고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는 양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롬 8:1~2).

‘정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에게 야단맞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분명 잘못했다. 아주 큰 잘못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다. 네가 잘못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다. 너의 잘못을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해결하마. 내가 용서하마.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로 인해서 그 자녀가 분명 잘못했지만,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즐겁게 순종하는 자유

둘째, 즐겁게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순종이란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는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를 공격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면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되는 것은 인간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율’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율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자유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질서를 순응하는 모든 삶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즐겁게 순종하고, 그 질서의 율타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즐겁게 순종하는 그 자체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그 사건이 에덴동산에서 선악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밖에는 무한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14면에 계속>

“원치 않는 임신 예방해요”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

‘아름다운 피켓’ (대표 서윤화 목사)에서 2021 크리스마스 캠페인 ‘원치 않는 임신 예방해요’를 실시한다. 12월 24일(금)과 25일(토) 신촌(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홍대(뉴발란스 앞,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강남(카카오프렌즈 앞)에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한다.

아름다운 피켓은 ‘아름다운 일을 위해 아름다운 피켓을 든다’는 의미다. 생명존중 및 낙태반대를 외치는 프로라이프(Pro-Life) 운동을 하는 단체이다. 아름다운 피켓을 드는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무분별한 성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여성을 아껴달라는 메시지도 전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지난해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

차승호 집사(주식회사 아이비랩 대표, 순복음교회)는 2년 전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처음 참가했다. 아름다운 피켓 캠페인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낙태의 위험성이나 실태를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지인 소개로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참가하면서 프로라이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피켓팅을 해보니까 정말 귀한 운동이더라고요. 피켓에 담긴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임신과 태아의 신비, 낙태의 실체를 알게 되고,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헌신으로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일에 동참할 수 있기에 정말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집사는 거주지인 인천에서 올해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참가할 예정이다.

“인천에 사는 봉사자들과 함께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피켓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변화가인데, 크리스마스에 놀러 나온 젊은이들에게 피켓 메시지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입니다.”

차승호 집사는 특히 남자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젊은 친구들이 피켓에 쓰인 문구를 보고 키득거리면서 지나가거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태아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남자 청년들에게 파급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고 싶은 것은 모든 남자의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차승호 집사는 우리나라 낙태 현황에 대해서도 걱정과 우려를 쏟아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아가 27만 명 정도였는데, 낙태된 태아는 신생아 보다 두 배 정도 많은 50만 명입니다. 나라에서 저출산 위기다, 인구절벽이라고 외치면서 한쪽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했습니다. 또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하는 문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더 많은 교회가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불을 일으키듯이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계기로 프로라이프 운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준일 교수(연세대 수학과)는 아름다운 피켓 이사로 섬기고 있다. 2016년 우연히 페이스북(SNS)에서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 광고를 보고 후원금을 보냈다. 그가 직접 피켓팅에 참가한 것은 2019년부터다.

“학생 한 명이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참가신청을 했다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대 앞에서 피켓팅을 했습

니다. 그때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보통 낙태 반대 캠페인은 구호가 무겁고 어두운데, 아름다운 피켓은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피켓 메시지가 참 좋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피켓을 보고, 설문 조사에도 참가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누가 자신을 가르치려고 들면 굉장히 불쾌해하는데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은 피켓으로 메시지만 전달하니까 차분하게 쳐다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준일 교수는 이 좋은 캠페인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고 토로하면서 온누리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온누리교회가 지난번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캠페인’에 참가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가해 주셔서 그런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프로라이프 운동이나 관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온누리교회는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앞장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같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생명운동이 확산하면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할 것입니다. 생명 운동은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낙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계속 캠페인을 할 것입니다.”

**12월 24일과 25일
더 많이 참가해주세요!**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은 2011년부터 시작했다. 서윤화 대표가 그해 크리스마스 즈음 들은 설교가 계기였다.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잔치날인데, 세상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메시지가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죽어가는 태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교회에만 있을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고 넓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외침이지만 그 메시지를 보고 누군가는 생명을 지켰다.

“여지로 친구 따라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참가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 여자친구와 낙태 경험이 있던 친구더라고요.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참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인이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면서요. 예전 같았으면 ‘내 인생 망칠 일 있니? 낙태해야지’라고 말했을 텐데,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참가하고 낙태의 위험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고는 그렇게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낙태하면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민상담했던 지인이 조언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결혼해서 무사히 아기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또 한번은 낙태약을 먹었던 여성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먹는 낙태약은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1단계 약을 먹고 곧바로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포리베’(For Little Baby; 아름다운 피켓 유튜브 채널)가 제작한 낙태약 영상을 보고 낙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2단계 약을 먹지 않고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지금은 결혼 준비 중이라며 감사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 참가신청은 아름다운 피켓 홈페이지(www.beautifulpicket.com)에서 하면 된다. 원하는 날짜(12월 24일, 25일), 장소(신촌, 홍대 일대, 강남), 시간(오후 3시~9시, 1시간 30분 단위)을 선택하면 된다. 약속한 날 거리에서 ‘원치 않는 임신, 예방해요’, “낙태의 두 번째 피해자 바로 여성입니다”, “그 낙태가 마지막 아기일 수 있어요”, “태아도 어린이예요”, “사나이는 여성과 아기를 버리지 않는다” 등의 메시지가 쓰인 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면 된다.

서윤화 대표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온누리교회의 후원 덕분에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사람 모집하는 게 힘들었는데 온누리교회처럼 뜻을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덕분에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문의: beautifulpicket@gmail.com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

일정: 12월 24일(금), 25일(토)
장소: 신촌(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홍대(뉴발란스 앞)
홍대(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강남(카카오프렌즈 앞)
시간: 1타임(오후 3시~4시 30분)
2타임(오후 4시 30분~6시)
3타임(오후 6시~7시 30분)
4타임(오후 7시 30분~9시)
봉사신청: www.beautifulpicket.com
단체문의: 010-2426-4620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04-107090
(아름다운피켓)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평생 그림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개인전 29회, 아트페어 10여 회, 기독 서적 11권 출판 등 정말 부지런하게 미술선교에 앞장섰다. 그의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도 전도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젊은 시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안문훈 작가(남양주온누리교회)와 커피 한 잔 했다. 붓끝으로 복음 전하는 작가의 헌신에서 묻어나오는 그윽함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풍미를 자랑했다.

붓끝으로 전하는 ‘복음’

기독미술 안문훈 작가와의 커피 한 잔

마치 바울과 예레미야 같았다. 안문훈 작가 말이다. 한나절이나 이어진 인터뷰를 마치고 든 생각이다. 안문훈 작가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이 40여 년 이어진 미술선교의 원동력이다.

작가라면 모름지기 시그니처가 있기 마련이다. 안문훈 작가의 시그니처는 빨간색이다. 그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자주 사용한다. 꽃을 수놓은 그림에도 빨간 점하나를 찍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객에게 안문훈 작가가 다가가는 것 자체가 전도다. 40년 동안 복음만 그린 작가의 필력과 영성이 보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작가들은 화풍이 일정하다. 그런데 안문훈 작가의 작품은 다르다. 실험적이고 재료와 기법들이 신진작가들만큼 공격적이다. ‘한지성형’, ‘유화’, ‘컴퓨터그래픽’, ‘모시 조형’, ‘한지요철조형’, ‘수묵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그 비결과 원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다.

**생활고 해결해 달랬더니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

안문훈 작가가 복음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30대 무렵이다. 당시 안문훈 작가는 단칸방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제와 공모전 입상을 꿈꾸는 전통 산수화 작가였다. 이제는 풀릴 때도 된 것 같은데 좀처럼 입상이 어려웠다. 위장병과 생활고마저 그를 괴롭혔다.

“미술제와 공모전 입상만 바라보고 작품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위장병으로 아픈 배를 부여잡고 제발 생활고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 입술에서 복음에 대한 기도가 저도 모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전도자의 사명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작품으로 표현하려고 수묵화 작가에서 유화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실험적이고 공격적인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작품으로 표현하기가 벅찼습니다. 작품이 모이면 개인전을 하는데 저는 한 해에 개인전을 4번이나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안문훈 작가가 전도자의 사명을 품고 작품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고백이 결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애끓는 전도 열정을 참지 못해서 버스와 지하철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는 동료 기독미술 작가들과 선교회를 만들어서 중국에서 미술선교를 했다.

“중국 베이징에 인사동의 여섯 배쯤 되는 ‘798 미술 특구’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는 나라지만 그림으로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작가들이 전시회를 하면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베이징 외곽 ‘송주양 예술인촌’에는 중국 기독미술인이 만 명쯤 됩니다. 다들 열정이 있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서로의 작품을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진짜 감동 있는 그림으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작가 100명이 그리는 작품은 모두 다르지만, 작품에 감동을 담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다. 안문훈 작가도 마찬가지다 그림에 복음이 주는 소망을 담는 것이 그의 목표다. 그의 작품에는 진짜 감동이 있다.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올라온다. 안문훈 작가의 작품이 인정 받은 비결도 감동이다.

“크리스천이라는 용어가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줘야 의미가 있듯이, 그림도 보는 사람이 감동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전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복음의 감동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관람객들이 “선생님 그림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서 더욱 공격적으로 미술선교를 위한 작품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독미술 작가라는 호칭답게 안문훈 작가는 개인전을 열 때마다 관람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올해 6월에는 ‘순례자 꽃이 되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관람객이 찾아오면 그림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개인전 ‘순례자 꽃이 되다’에서 복음을 전한 관람객이 무려 765명이다. 작품이 팔리는 것보다 관람객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기독미술 안문훈 작가(위)와 그의 작품들. '구름 위의 상봉' (좌), 'Powerful of Heaven' (우).

일흔한 살 老작가의 ‘하늘나라’

안문훈 작가는 올해 일흔한 살이다. 이제는 그동안 펼쳐온 작품세계를 정리하고 정점을 찍을 시점이다. 하나님이 안문훈 작가에게 주신 주제는 ‘하늘나라’다. 10여 년째 하늘나라를 묵상하고 그리는데 몰두하고 있다. 하늘나라야말로 크리스천들의 감동과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왜 기뻐해야 할까요? 관람객들이 왜 제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상으로 하늘나라를 그리다가 사실적으로 그려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

다. 하늘나라, 종말, 예수님의 임재는 사단의 공격이 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반한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종말론, 조직신학 등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묵상하면서 얻은 기쁨과 은혜를 그림으로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묵상집 <새 하늘 새 땅>, <소망의 큰 즐거움>, 소설 <니고데모와 간다게네시>를 출판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해보십시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작품들이 모이면 개인전을 열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땅끝에서 만난 NGO 더멋진세상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멋진 세상이 있었습니다!”

우간다 남수단 난민 헬렌 로조 자매의 눈물 젖은 고백

NGO 더멋진세상이 창립 11주년을 맞이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로 지난 11년 동안 전 세계 24개국에서 총체적인 선교 활동을 이어왔다.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면 메마른 땅에서 깨끗한 생수가 나오고, 소외된 이웃들이 소망을 품고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교가 어려운 상황에도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 현장은 심이 없다. 고대선 지부장(NGO 더멋진세상 우간다)이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남수단 난민 헬렌 로조 자매의 이야기를 보내왔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편집자 주



고대선 지부장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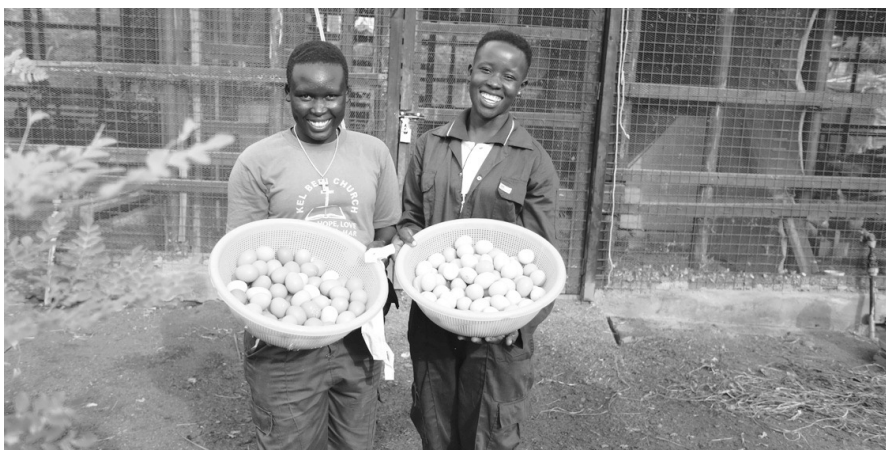
2016년, 남수단 내전이 다시 발발하면서 반군과 정부군에 의해 마을이 불타고, 국민이 죽어 나가는 참상이 또 벌어졌다. 눈앞에서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극심한 공포를 목격한 남수단 사람들이 국경을

맞댄 우간다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다. 정신없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우간다 국경 너머에 형성된 난민촌에 터를 잡았다.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에 잠시 한숨을 돌린 이들이 난민촌에서 또 다른 어려움과 맞닥뜨린다. 맨몸으로 도망친 신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제공한 텐트에 몸을 맡기고, 매일 유엔식량계획(WFP)에서 나눠주는 옥수수가루로 근근이 살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7년부터 남수단 난민들이 거주하는 ‘팔로리냐 정착촌’에 식수대를 설치하고, 임시교실로 사용할 텐트를 제공하는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지원하고, 나무 그늘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텐트 교실을, 나중에는 벽돌로 지은 멋진 학교를 세웠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급식도 제공하고 있다. 어른들의 자립을 위한 재봉센터와 양계장도 운영하고 있다. 각 마을에서 뽑힌 훈련생 15명이 열심히 양계 기술을 배우고 있다.

적도의 강렬한 햇살을 피해 그늘을 찾는 양계장 훈련생들의 이마에 구슬땀이 맺혀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들어 적막함마저 느껴지는 한낮 무더위를 뚫고 귤전을 때리는 우렁찬 수탉 울음소리가 들린다. 지난 4월 병아리 540여 마리를 난민촌 양계장에 들여왔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양계장에는 건강한 닭들이 여기저기서 모이를 쪼아먹으며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조금씩 산란을 시작해서 12월이 된 지금은 암탉 320여 마리가 매일 190여 개의 알을 생산하고 있다. 참 기특하고 대견



우간다 남수단 난민촌 시범 양계장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헬렌 로조 자매(우).

한 녀석들이다.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헬렌(23세, 여)은 양계장 절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매일 닭들에게 미생물과 채소, 곡물 및 약초가 들어간 건강한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고, 닭들의 위생을 위해 양계장 바닥에 미생물을 뿌리고 오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헬렌의 극진한 돌봄에 보답하듯 암탉들이 매일 신선한 달걀을 낳아서 보람을 느끼게 한다. 매일 아침 7시 양계장에 도착하는 헬렌은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과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헬렌에게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이다.

“양계장에서 일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이전의 아픈 기억들을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헬렌은 두 아이의 엄마다. 어린 나이에 남편과 이별했다. 정말 억척스레 살아온 헬렌에게 진하게 남아 있던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고,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반군에 의해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헬렌도 여느 난민들처럼 부모와 형제들의 손을 잡고 목숨을 건 탈출을 했다. 2016년 18세 늦은 나이에 중학교를 다니던 헬렌은 난민촌으로 옮겨 오면서 학교를 그만뒀다. 또 한 번 절망감을 맛봤다. 오빠 1명과 남동생 3명이 있는데 모

든 자녀들의 학비를 부모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헬렌은 지참금을 받는 조건으로 결혼을 해야 했다.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해 봤지만 소용 없었어요. 난민촌의 형편을 저도 알고 있어서 받아들이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에 등 떠밀려 20살에 결혼했다. 이른 나이에 원하지 않는 결혼 그 자체가 그녀에게 땅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억지로 한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난민촌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난민촌의 열악한 상황에서 일지리를 구하기 힘든 남편이 변했다. 매일 술만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리는 헬렌과 다툼이 잦아지면서 부부 갈등도 고조되었다. 게다가 결혼 대가로 처가에 줘야 하는 지참금을 남편의 집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이어졌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남편의 음주와 가정을 등한시하는 행동이 심해졌다. 더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오빠가 헬렌을 집으로 데려오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헬렌이 둘째를 출산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때였다.

세 살짜리 첫째 아들과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온 헬렌은 생계를 위해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았다. 2020년 4월부터 시장에서 일하던 헬렌이 NGO 더멋진세상이 난민촌에 양계장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사장 인부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을 시작했다. 우연히 시작된 NGO 더멋진세상과의 만남이 그녀에게

기적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헬렌이 건축 인부들의 식사를 담당하던 일이 끝났는데 양계장 훈련생들의 식사 담당자로 계속 일할 수 있는 행운이 이어졌다. 당시 건축 책임자였던 기술자의 눈에 띄어 추천을 받았다. 식사 담당자로 일한 지 5개월만인 지난 6월에는 헬렌의 영민함을 알아챈 정봉진 선교사의 결정으로 양계장 절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양계장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스스로 양계장을 운영하고 싶어요. 재봉 기술도 배워서 양장점도 차리는 게 꿈입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더 멋진 내일을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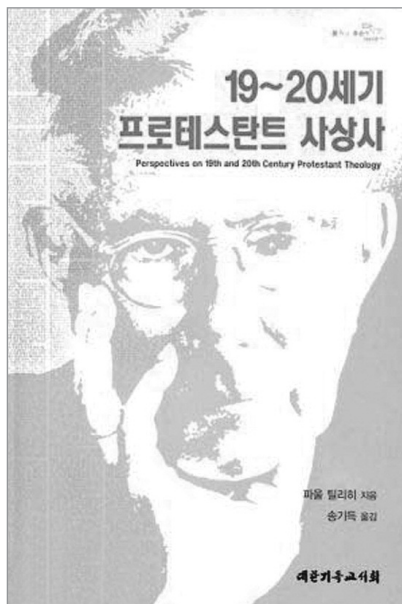
정말 땅끝인 줄 알았는데 더 멋진 세상이 있었다. 지난 삶의 아픔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분주하게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가면 가장 먼저 세 살짜리와 8개월 된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저녁식사를 먹고 집안일을 한다. 헬렌에게는 두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두 아이를 떠올리며 더욱 힘을 내곤 한다. 식사를 마치면 부모님과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목회자인 어머니의 인도로 함께 찬양하고, 어머니의 말씀 선포 이후 각자 있었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갖는다. 헬렌은 날마다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기도한다. 자신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며 위로를 얻는 헬렌은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더 멋진 내일을 꿈꾸고 있다. 그 꿈을 위하여 오늘도 작업복을 입고 구슬땀 흘리고 있다. 헬렌의 꿈은 땀방울을 보상이라도 하듯 건강한 닭들이 낳은 탐스러운 유정란이 바구니에 가득하다.

NGO 더멋진세상이 찾아가는 지구촌 곳곳에 또 다른 헬렌이 꿈을 키우고 있다.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땅끝에 NGO 더멋진세상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온누리교회와 NGO 더멋진세상의 섬김 덕분이다.



책 읽어주는 목사

왜 사상의 역사인가?



〈19~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파울 틸리히 저 | 대한기독교서회
| 12,000원

사람은 생각한다. 그런데 그 생각은 나름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C.S. 루이스가 정직의 문제에 관해 “더 정직한 사람이 있거나 덜 정직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의 문제 또한 ‘더 올바른 생각이 있거나 덜 올바른 생각’

이 있는 것이지, 문제없는 완벽한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에는 어떤 오류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혼자 골똘히 생각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누군가의 생각과 만나야 찾을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책 〈19~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는 이 만남을 ‘사상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독자에게 제공해 준다. 독자들은 사상의 역사를 통해서 무조건 옳다고 신봉했던 생각에도 한계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며, 이를 통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사상의 역사를 크게 다섯 가지로 보여준다.

첫째, 정통주의다. 정통주의는 종교개혁 직후 나타난 사상이다. 로마 가톨릭을 뚫고 나오도록 이끈 ‘오직 믿음으로’와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는 그 시대의 새로운 원리가 아니었다. 고대교회의 사도적 전승과 이어져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멀어져 버린 사도적 전승을 객관적인 교회의 기준과 지표로 회복하고자 모든 신학적 수고를 쏟아부었다. 이러한 당대의 열망이 정통주의라는 사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건주의다. 경건주의는 정통주의의 객관성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사상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통주의의 사상이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경건주의의 사상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통주의의 사상이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경건주의의 사상이다. 정통주의는 객관성을 강조하지만, 경건주의는 그 객관적인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주관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루터와 칼빈이 객관적인 교회 지표로 삼았던 경험적 요소를 새롭게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계몽주의다. 계몽주의는 경건주의의 신비성을 배제한다. 신비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계몽주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인정한다. 세상은 피조된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조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싸움은 은총이나 기도와 같은 요소가 부정되는 도덕적 싸움이다. 이로써 신성의 신비적 임재가 철저히 부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에서 도덕적 인간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며, 이를 위해 피조된 인간은 유한하며 부족하지만, 결코 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것이 계몽주의다.

넷째, 로망주의다. 로망주의는 계몽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 계몽주의가 유한과 무한의 관계를 분리로 봤다면, 로망주의는 유한과 무한의 관계를 관여로 본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세계역사에 관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기독교

가 다른 모든 종교보다 탁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한 섭리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종교, 예술, 철학으로 나타난다. 종교는 하나님 임재로 나타나는 현실이고, 예술은 하나님 표현으로 나타나는 현실이며, 철학은 하나님 이해로 나타나는 현실이다. 이렇게 무한과 유한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로망주의다.

다섯째, 실존주의다. 실존주의는 거대 역사 속에서 소외되는 개인을 강조하며, 로망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진행되는 세계사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죄다. 그리고 절망과 불안이다. 이러한 인간의 상황은 로망주의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낙관하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성취에 강한 의문을 던진다.

이 책은 각 사상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생각이 지니는 한계와 문제를 보여줌으로써 특정 생각을 신봉하는 대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한화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노리마쓰 선교사

경기도 수원에는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동신교회’가 있다. 우리가 동신교회를 알아야 할 이유는 오랜 역사보다 창립자가 일본인 선교사이기 때문이다. 동신교회 창립자 노리마쓰 선교사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복음 전하러 온 최초의 선교사이다.

노리마쓰 선교사는 하급관리로 근무할 때 기독교인이던 하숙집 주인을 통해서 요코하마기독교교회에 출석하게 됐다. 복음을 들은 노리마쓰는 관직을 버리고 메이지대학 신학부에 입학한다. 그 이후 니가타현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 한국인 박영효를 만나고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다. 동역자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노리마쓰 선교사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매우 가슴 아파하면서 조선의 비극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결단했다고 한다.

1897년 12월 28일 제물포항에 도착한 노리마쓰 선교사는 서울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전도에 힘썼다. 노리마쓰 선교사는 수원에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한 성도의 부탁으로 전도를 시작했다. 노리마쓰 선교사는 조선사람으로 생활했다. 자녀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지도 않았다고 한다.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지고, 아내 사토의 머리카락을 팔아 쌀을 사서 성도들을 대접할 정도로 가난한 선교사였다. 동네 사람들은 노리마쓰 선교사 부부를 ‘성자’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노리마쓰 선교사는 1925년 전도하다 폐렴으로 소천했다. 동신교회에 세워진 노리마쓰 선교사 추모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몸소 사명을 띠고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조선에 전하였노라...”

두란노 신간

자녀에게 용기를 선물하세요!



〈니 아버지처럼 용기 내 봐〉
닉 부이치치 저 | 두란노 | 13,000원

처가 된다’, ‘책 미안해, 나를 용서해 주겠니?’, ‘외톨이가 될까 봐 걱정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아이야’, ‘친구야, 날 안아 줄래?’, ‘다른 친구들에게 친절해 봐’ 등을 주제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야기마다 닉 부이치치가 전해주는 도전의 메시지와 생각거리가 있다.

요즘 왕따,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등 아이들의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바른 인성의 크리스천 어린이들이 학교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자녀와 함께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녀에게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짧은 편지까지 곁들이면 이보다 좋은 선물이 없을 것이다.

팔다리가 없지만 전 세계를 누비며 행복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 닉 부이치치가 〈니 아버지처럼 꿈을 가져〉, 〈니 아버지처럼 할 수 있어〉에 이어 꿈쟁이 시리즈 세 번째 책을 냈다. 〈니 아버지처럼 용기 내 봐〉다.

책 〈니 아버지처럼 용기 내 봐〉에는 닉 부이치치가 괴롭힘에 맞서서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어릴 적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등 모든 어려움을 딛고, 용기를 내고, 문제를 헤쳐나갔던 이야기를 적었다. 닉 부이치치는 어린이들에게 용기 내 친구를 사귀고, 용기 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용기 내 친구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책은 여덟 가지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우리는 달라’, ‘아무도 나랑 놀려고 하지 않아요’, ‘나쁜 말은 상처가 된다’, ‘책 미안해, 나를 용서해 주겠니?’, ‘외톨이가 될까 봐 걱정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아이야’, ‘친구야, 날 안아 줄래?’, ‘다른 친구들에게 친절해 봐’ 등을 주제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야기마다 닉 부이치치가 전해주는 도전의 메시지와 생각거리가 있다.

라떼는 말이야

삶의 목적과 기준의 우선순위

“주일에 순예배를 드릴 때 순원들과 권면과 축복을 나누고 한 주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나 낯 크리스천 친구들과는 눈치 안 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가끔 신앙과 가치관 사이에서 괴리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동료나 친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비판하거나 가정과 결혼 등 전통적인 가치관을 구시대적 개념이라고 폄하하고,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할 때 동의하지는 않지만 웃고 지나갈 때가 있다. 그들의 의견이 내 신앙의 양심과 불일치하더라도 서먹함과 분란을 피하려 묵인할 때도 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불편함이 남는다. 이러한 일들이 쌓이다 보면 내 신앙과의 괴리감이 커진다. ‘그냥 내가 입 다물어서 모임에 평안을 이루자’,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참견하지 말자’, ‘크리스천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착한 크리스천이 되려고 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 12:18)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과

충돌 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

‘내 불편함은 주 앞에 인내요 오래 참음이야!’

나도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망상이었다. 이런 행동의 대가로 얻은 평화와 화평은 거짓이다. 나에게 솔직해져 봤다. 나도 내 의견을 주장할 때가 있고, 열심히 반론하고 설명할 때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과 내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거나 연장자와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것 같으면 눈치 보고 스스로 인내와 오래 참음 모드를 유지했다. 그 사람과 계속 보고 지내야 하거나 그 모임에 꼭 소속되고 싶으면 더 열심히 인내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아니라 위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은 가짜 평안이었다. 평안은 삶의 결과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평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내 삶은 거짓과 부패로 변한다.

친한 친구들과 관계를 좋게 만들고, 직장동료에게 인정받고, 상사나 선배의 말씀에 동의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행동이다. 그리스도인도 일터에서 자신의 주장과 의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의 목적과 기준의 우선순위’이다.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의도가 하나님 앞에 기증스러운 거짓말

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위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화목하라”는 말씀은 친한 동료들과 화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과 화목하라는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는 말씀은 선배, 동료 가운데 휩쓸려 살다가 잠깐 괴리감을 고민하는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다. 동료와 부하직원을 교회 지체를 섬기듯 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음해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말씀이다. 그들이 미안해할 만큼 밥도 사주고, 칭찬도 하고, 일도 도와주라고 하신다. 도저히 못 하겠으면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도 토로하라고 해결방법까지 가르쳐주신다.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불편하고 괴리감을 주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하기를 권한다. 분위기가 다소 썰렁해져도 대화의 방향을 돌리는 게 좋다. 기회가 된다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차분

히 설명해보기를 권한다. 특히 진리를 부인하거나 신앙에 거리끼는 말과 행동은 꼭 그래야 한다. 그것이 진리대로 사는 사람의 행동이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신념을 용기 있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어정쩡하게 지킨다면 동조한 책임을 더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한다. 만약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 모임을 피하기를 바란다.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긍휼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알고 행동해야 한다. 문제의 크고 작음보다 나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의 눈을 생각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전처럼 살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 된 자녀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



이상준 장로
(허브대학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특성을 이해하고, 대화하며, 준비하라!

부부관계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관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고자 한다. 또한 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경험할 때, 해소하고자 하는 각자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반사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빈번하고 익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부관계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과 고통에서 회피하지 않고, 대면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는 매우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대면해서 관계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야 한다. 개인의 성숙성과 용기, 기대와 인내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부는 다양한 이유로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집안에서 너무 편하게 입고 다니던지, 생활 속의 소소한 습관들을 보면서 ‘정기 똑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함께 살기 때문에 타인들은 절대 볼 수 없는 내면의 깊은 모습까지 보게 된다. 인내로 수용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일정 시점에서 폭발하거나 폭발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부부가 감정적 폭발

을 경험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잘 선용하면 서로 유익을 얻는 귀한 계기가 된다. 어떤 부부든지 스트레스가 쌓여서 극에 달하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의 차이로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거나 장기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취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식은 ‘동굴 지향’이다. 부부 사이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그에 반해서 일반적인 여성들이 취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식은 ‘관계 지향’이다. 마음이 상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남편과 관계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지향성이다. 서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지만, 해결 과정과 방식이 다르다. 서로의 스트레스 해결 방식을 먼저 이해하고, 동굴 지향성인 관계 지향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동과 태도가 보이는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한다.

남편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서 잘 정리하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게!’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부부 관계가

심각한 불신의 늪에 빠져있는 수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관계의 회복력이 있는 부부 관계 범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남자는 동굴에서 시간을 가지면서 상황을 정리한다. 마음의 용량에서 넘쳐버린 격한 감정들을 회수하는 노력을 한다. 아내와의 갈등상황을 이성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려는 자신만의 시도를 한다. 감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혼자 정리하는 시도를 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면 다시 부부 관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 지향성이 있는 아내는 자신을 혼자 내버려 달라는 남편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남편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행동의 의미가 ‘당신에게 고통의 끝을 맛보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감정이 어렵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지만 어떻게든 서로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다시 친밀감을 회복하길 원해요’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서로 행동의 의미만 잘 이해하더라도 비교적 순조롭게 폭풍의 언덕을 넘을 수 있다.

전쟁은 평화의 시기에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부부 관계에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어떻게 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이 ‘타임아웃(time-out)’이다. 서로 스트레스가 쌓여 부딪힐 때, 분노가 자신의 통제 밖을 벗어나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타임아웃이 필요한지 미리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연습하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교적 쉽게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하면서 상황을 준비한다면 스트레스 속에서도 부부의 긍정적 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나눔: 동굴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의 스트레스 해소 추구 방식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서로 나누어 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제1372호 | 2021년 12월 12일(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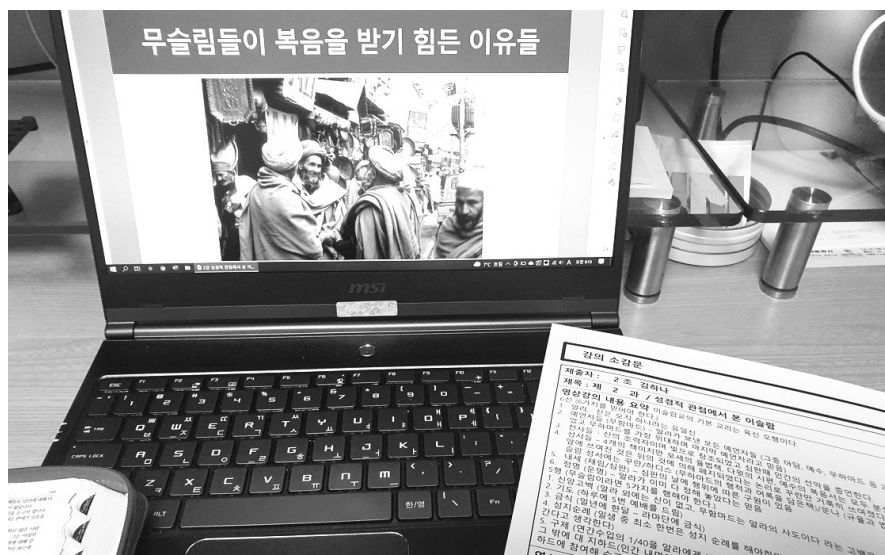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와이무슬림 수료 간증

나에게는 전체 인구 중에서 89%가 이슬람교를 믿는 방글라데시 출신 친구가 한 명 있다. 2015년 싱가포르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 지금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살고 있다. 나는 3년 전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때마침 방글라데시 친구가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비슷한 시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너무 신기했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연이라 생각하면서 불같은 전도의 마음을 품었다.

올해 여름,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오랜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다. 반가운 마음이 무척 컸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뜸 “나는 절대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을 거야. 나는 100% 무슬림이야.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본국의 가족들과 많이 통화하고 소통하면서 마음이 굳어진 것 같았다. 그 친구와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함께 인정하고 감사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 친구가 묘한 불편감을 드러냈다. 어떻게 대화를 끌어갈지 몰라서 그 만남이 흐지부지 끝



김하나 자매(여호수아청년부)는 와이무슬림 강의를 들으며 무슬림 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났다. 그날 여호수아청년부 주보에 ‘와이무슬림’ 모집 광고가 나왔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으로 수강신청을 했다.

매주 강의를 들을수록 이슬람은 기독교와 정말 다른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죄의 개념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부활에 대해 이슬람교는 모두 부정한다. 개인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

는 것을 가장 크게 강조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다. 무슬림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라마단 금식 기간을 지키는 줄 알았다. 그러나 행위에 의한 구원 조건과 두려운 알라에 대한 복종 때문이었다. 무슬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다. 행위를 통해

서는 하나님의 의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한 바른 복음이 무슬림들에게 전해지기를 무릎과 물질로 후원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CGNTV 미디어 선교 후원을 하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또 놀라웠던 것은 이슬람교는 문화와 종교와 정치가 하나라는 점이었다. 율법으로 가정과 사회가 묶여 있어서 개종 자체가 가족과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는 무슬림 문화를 이해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그 친구에게 얼마나 배려심 없이 행동했는지 돌아보았다. 그 친구에 대해 무지했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 눈물로 회개했다. 무슬림 친구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오직 사랑과 헌신,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한국에 온 많은 무슬림들, 유학생들과 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한다. 그들의 아프고 상처받고 가난한 심령을 공감하고, 더 많이 들어주는 사랑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내 친구를 포함한 많은 무슬림의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것이다.

/ 김하나 자매(여호수아청년부)



코로나19, '이주민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 '스타트리협동조합'

스타트리협동조합이 생긴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 밖에는 그 어떠한 고백도 나오지 않는다.

비즈니스 선교의 장 스타트리협동조합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이주민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생긴 장소인 동시에 비즈니스를 통한 이윤 창출과 영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기쁨인지 모른다. 더 많은 이주민과 인도네시아 형제자매들이 스타트리협동조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한다.

올해 마지막 바리스타 교실을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꾸준히 모이는 학생들과 계속 생기는 수업(재봉, 종이꽃, 한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 베이커리 등) 그리고 봉사자들을 보면서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스타트리협동조합을 카페로 등록하려다가 법적인 문제로 협동조합으로 등록했다. 건물 1층이 나가면 카페를 오픈하자는 생각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1층 가게가 곧 나간다. 건물주가 권사님인데 이 건물이 선교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1층도 임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타트리협동조합은 비즈니스 선교다. 본국에서 카페 창업을 꿈꾸는 이주민들이 바리스



스타트리협동조합에서는 바리스타, 재봉, 종이꽃 등 다양한 강의와 돌봄으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타 교육을 받고, 실습할 공간이 필요하다. 글로벌 프랜차이즈화를 위해서 아직 펼쳐갈 꿈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비즈니스 확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 이렇게 카페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 걸까? 분명 감당하기 힘들텐데 말이다. 비즈니스 선교이니까 이윤도 나야 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카페와 레스토랑

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목적과 방향, 선교와의 접점 등을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또다시 마음이 흔들린다. 이번에는 재정과 사람이 걱정된다.

하나님께서 스타트리협동조합을 만드시는 것을 경험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 사인을 먼저 받아야 할 것 같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50만 원 이하면 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딱 보증

금 1천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마음이 흔들린다. 기도온처럼 계속 하나님께 물을 것이다. 아직 1층 가게가 나가려면 2달 보름 정도 남았다. 이 기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할 것이다.

바리스타 6기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 시스위로 삼촌 아내가 알코올중독치료차 포항에 가 있어서 바리스타 교육 보조로 돕고 계신다. 한국 생활을 오래 하셔서 교육생들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고 계신다. 바리스타 교육생들에게 복음과 예수님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있다. 종이꽃 공예 수업에 오는 시시 자매는 함께 수업을 들었던 캄보디아 사모님과 매주 자녀 양육 상담을 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목사님의 제안으로 매주 목요일 ‘이주민 여성모임’을 하려고 한다. 이 모임을 통해서 이주민 여성들이 위로받고, 전도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란 자매 사마네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레자 형제가 스타트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시스위로 삼촌이 전도하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문의: 010-3214-0754

/ 이경원 선교사(스타트리협동조합)

“주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바이블아카데미 '우리동네 성지순례' 수료 간증

한동안 구직활동에 나섰다. 일거리를 찾는데 시간이 꽤 흘러버렸다. 지난해 10월 전주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주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믿음으로 시작한 새 일이었지만 막상 지방 생활과 익숙하지 않은 업무가 너무 힘들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라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했는데, 낯선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인지 그저 피곤하고 괴로웠다.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 유명하다는 전주한옥마을조차 가볼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전주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다.

바이블아카데미 '우리동네 성지순례' 과목에서 '전주'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다. 너무 놀라 수강신청을 했다.

바이블아카데미 '우리동네 성지순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반성이었다. 감사님과 같은 공간(전주)에 머물렀지만, 나의 시선은 감사님의 시선과 달랐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아니었다. 그 기간이 힘들다고 울며불며 보내기만 했다. 실로 한심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 뭐가 그리 힘들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을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의 어리광 같은 부르짖음과 기도에도 주님은 진실로 신실하게 응답해주셨다는



송하은 자매(CH PLUS청년부)가 바이블아카데미 '우리동네 성지순례' 수업을 듣고 있다.

점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강의에서 전주예수병원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예수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하러 가본 적이 있다. 그때도 나는 온통 힘들다는 생각에 빠져서 예수병원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병원에서 일어난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전진 선교사님이 전주에서 소천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본국에서 종을 전주로 파송했다는 설명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내 마음을 울렸다. 내 눈에는 전주가 평범한 도시로밖에는 안 보였다. 어디나 있는 슈퍼마켓이 있고, PC방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카페가 있었다. 그 거리가 구한말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이 젊음과 목숨을 바친 곳이라니. 기적

과도 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도시라니! 명백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마음이 숙연해졌다.

앞으로는 주님이 주신 상황 가운데서 불평보다 믿음의 반응을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듣다 보면 나의 더럽고 작은 모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자꾸만 숙연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다.

기전여학교가 세워진 것과 이를 통해 전주의 교육과 문화, 시대 상황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간 이야기, 한센병 환자의 환부에 곱디고운 처녀 선교사님이 약을 바르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 여자 고아들을 돌봐주고 거둔 이야기 등을 들으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동을 되새겼다. '예수님 닮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조차 망설이던 나였다. 안 좋은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내가 되고 싶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고 싶다.

바이블아카데미 우리동네 성지순례 과정을 통해서 전주에 대해 몰랐던 부분과 그 속에 선교 이야기를 알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다.

/ 송하은 자매(CH PLUS청년부)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수료 간증

김형숙 권사님에게 가정사역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과정에 대해 듣고 나도 꼭 한번 수강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꽤 오래전부터 참가하고 싶었는데 예수제자학교(JDS) 과정을 수료하고, 간사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과 시간이 겹쳐서 참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아쉬움을 이변 212기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온화하고 따뜻한 코치님 부부와 아름다운 동행 두 커플과 함께 걸어온 8주 동안의 여정은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한다.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과정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어서 조금은 아쉬웠다. 하지만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교재를 받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와 함께 사랑으로 예배를 했더니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

부부가 과제물 결과를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다. 매주 이번에는 어떤 주제, 어떤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져주실지 기대감이 생겼다. 날마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과정이 기다려졌다.

특히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서 배운 부부간의 대화 매뉴얼을 지키면서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고,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서 최고의 동행을 찾은 안용길, 오영미 부부(주님의 몸된교회).

부부의 대화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다. 부부가 함께 행복을 느끼면서 즐거움이 두 배나 커지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첫 만남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주제곡이 내 귀와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나는 그 찬양을 평안하게 따라 불렀다. 또 강의를 듣기 전 팀장님의 부드러운 진행도 돋보였다. 낯설고 긴장된 마음이 싹 풀렸다.

김형숙 권사님의 나눔과 강의는 정말 최고였다. 어디 그뿐인가. 조 나눔 시간에 코치님의 진행과 나눔, 함께 참여한 부부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 조원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아! 저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부부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해결책을 나누면서 내 모습과 내 문제를 비춰보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은혜도 컸다. 다양한 시각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

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첫 시간부터 우리 부부가 무장해제 된 모습으로 즐겁게 나눔에 참가하고, 부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기쁨의 샘이 차고 넘치는 경험을 얻을 수가 없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 8주 동안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2조 코치님과 동기 커플들에게 감사하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다. 동년배들과 함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서로의 고민과 생각, 문제들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수료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게 아쉽기만 하다. 한동안은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이 진행된 토요일 오후 3시가 허전할 것만 같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은 따뜻한 동행, 사랑의 동행, 치유와 회복이 있는 동행이었다. 행복을 나눠주는 최고의 동행이었다. 한 번으로 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 몇 번 더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과 배우자에게 감사하다. 수고해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 팀장님과 코치님들의 사랑의 섬김과 기도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모두 진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안용길, 오영미 부부(주님의 몸된교회)



사진은 2021 장로장립식 세족식.

“복음, 기도, 세계 복음화 등불을 밝히자”

장로장립예배 ... 신임장로 47명 장립

온누리교회 장로 47명이 새롭게 세워졌다. 지난 12월 4일(토)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21 장로장립예배를 드렸다.

장로장립예배는 1부 정진호 장로의 기도, 장로합창단의 특송, 김태영 목사(증경총회장)의 설교, 김영욱 피택장로의 간증, 2부 서약식, 세족식, 선포, 김문재 목사(평남노회장)의 축사, 정과종 장로의 권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영牧사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김 목사는 “한국 교회의 등불이 깜빡이고 있다”면서 “한국 교회와 온누리교회가 복음의 등불, 기도의 등불, 세계 복음화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헌신하자”고 말했다.

정과종 장로는 신임장로들에게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서 몸 된 교회를 이뤄나가고, 편한 사

람하고만 사역하려 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신임장로들이 봉사자로, 베푸는 자로 죽는 날까지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신임장로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 된 교회가 날로 평안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축복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12월 12일까지 엔젤트리 사연 연결

선물은 크리스마스 전에 도착하도록 배송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1 엔젤트리 사연이 100% 연결을 앞두고 있다. 올해 엔젤트리에 접수된 사연 6천 건 중에서 5,200여 건이 연결됐다. 남아있는 사연 800여 건도 12월 12일경 모두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엔젤트리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엔젤트리 선물은 크리스마스 전에 대상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배

송해야 한다. 번거롭더라도 선물을 손수 포장해서 보내는 게 좋다. 발송자의 주소와 연락처는 사회선교본부 ‘엔젤트리팀’과 ‘엔젤폰’으로 기록하면 된다. 대상자에게 엔젤트리에 대해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나 편지 등을 보내면 안 된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52 3층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엔젤트리
엔젤폰: 010-6442-0191

대학청년부, 이웃사랑 한창!

사랑앓나눔, 크리스마스 블레싱

대학청년부의 이웃사랑이 한창이다. 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쪽방촌, 차상위계층,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생필품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12월 4일(토) W청년부가 나섬교회를 섬긴 것을 시작으로 ‘사랑앓나눔’ 사역이 막 올랐다. 12월 11일(토) 허브대학부 신앙장로교회와 중앙사회복지관, 여호수아청년부 교남주민센터, 하늘대학부 관악노인복지관, CHPLUS청년부 등대교회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12월 18일(토)에는 요셉청년부 중랑구복지관, 길청년부 종로노인복지관, J4U청년부 공릉동종합사회복지관, SNS청년부 수서명화복지관, 산마루교회, Pole2대학부 작은자교회, 갈렙청년부 답십리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교회와 기관을 찾아가 예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시작했다. 12월 11일(토) 여호수아청년부 파주은빛교회(경기 파주)와 새축복교회(강원 영월)를 시작으로 12월 25일(토) Pole2대학부 흥천중앙교회, 유치리교회(강원 흥천)까지 총 84개 팀이 지역교회와 기관을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하고, 성탄예배를 함께 드린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시대의 사명 완수하는 NGO 되겠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창립 11주년 감사예배

NGO 더멋진세상이 창립 11주년을 맞았다. 지난 12월 7일(화)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NGO 더멋진세상 창립 1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김광동 장로 등 교회 리더십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지나치지 말고 못 본 체하

지 않는 NGO 더멋진세상이 되어달라”고 권면했다.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CEO는 “2022년에는 더 많은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고, 국제단체와 협력하고, 기후 및 환경변화 사업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 김영선 기자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대상: 2021년 10월 1일~
2021년 11월 30일 등록 성도

강남A 김영준 김태은 박연진 이선지 최혜림	박소현 채선희	함옥경
과천의왕 최신혜	서초B 남주혜 이소영 한응교	양재 박춘란 양지아
도곡 조은희	서초C 강일화 유미영	푸른누리 목지선 배중권
분당B 권기범		

온누리 남양주 캠퍼스 신축공사 입찰 공고

공사현장: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77

기간: 착공일로부터 25개월(예정)

규모: 6,824㎡(지하 5층, 지상 5층)

진행일정: 1차 서류심사,

2차 입찰 등록

서류 마감: 12월 21일(화) 11시

발주자: (재)온누리선교재단

문의: 건축관리부

(010-5308-3333)

*세부 안내 및 일정은 인터넷-BNIS 입찰정보 참조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1년 1월 8일(토)부터 2월 5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1월 29일은 명절 연휴 관계로 휴강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진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조별모임도 병행한다.

문의: 02-2182-9110

‘딩동! 선물 왔어요’

국내 최초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가치관 공과 세미나 ‘딩동! 선물 왔어요’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지연 약사(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박순애 작가(딩동! 선물

왔어요) 공저자)가 강의한다.

회비는 2만 원(교재비 별도). 회비 결제일로부터 30일 동안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문의: 02-2078-3456

대상 <미션! 스쿨어택>

2021 기독교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CGNTV가 주최한 ‘2021 기독교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CGNTV 2021 기독교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97개 콘텐츠 기획안이 접수됐다. 지난 12월 3일 CGNTV 본사에서 열린 2021 기독교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PT에서 추세린 자매가 제안한 <미션! 스쿨어택>이 대상을 받았다. 금상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김은

강), 은상 <다음세대, 게더타운에서 답을 찾다>(김서원), <He is alive>(김미소), 동상 <게임체인저>(양시온), <한방처방>(김지원)이 수상했다.

추세린 자매는 “미션스쿨을 깜짝 방문해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시도한다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기독교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지사에서도 진행됐다.

/ 김영선 기자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1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온라인

갈렙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1년 1월 2일(주일)부터 2월 20일(주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일요일 온라인(유튜브)으로 진행된다. 매주 일요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강의를 듣고, 그 주 토요일 줌(Zoom)으로 조별모임을 한다. 참가신청은 12월 26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갈렙선교학교에서는 ‘선교사의 부르심과 파송’,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 돌아보기’, ‘선교사 이해와 돌봄’, ‘문화장벽과 선교’, ‘갈렙의 변화 관리’, ‘미션 헬퍼십’, ‘이주민 선교’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문의: 010-7708-7700

바이블아카데미 빌립보서 수료 간증



/ 황태훈 형제(하늘대학부)

바이블아카데미 ‘빌립보서’ 강의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생각했다. 평생의 숙제로 품어야 할 마음이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강조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품는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낮아지신 분임을 강조했다.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기꺼이 사람과 똑같아지신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겸손을 계속 묵상해야 한다. 인간의 본능은 여전히 나의 이익, 정욕, 감정을 앞세운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내가 더 편해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세상에서 가장 불품없는 존재가 되었고, 가난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

성경의 모든 책이 마찬가지겠지만, 빌립보서 강의를 들으면서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믿음보다 생계를 걱정하고, 내 마음속 죄와 사랑을 점검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죄와 마음을 판단하는 모습이

평생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많았다. ‘어른이 됐으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하니까’, ‘정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참 부끄럽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빌립보서에 기록된 “주 안에서”라는 구절 덕분이다.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다. ‘왜 주 안에서’라고 표현했을까. 주님의 그늘 안에서, 그분의 팔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팔 안에서 하는 것만이 온전하기 때문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된다. 모든 짐을 주께 가지고 가면 주님 안에서 가벼워지고, 숙제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 내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뿐임을 기억한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복음이 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세례 간증



/ 김지경 성도(성동광진공동체)

내가 만난 그 좋은 하나님

학창 시절 친한 친구의 권유로 작은 카페에서 어느 전도사님을 만났다. 그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지우고 싶은 기억 중 하나다. 그날 이후 내 기억 속에 교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셨다. 남편은 모태신앙이고, 시댁 식구 모두 크리스천이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사랑이 많은 크리스천을 남편의 짝으로 생각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 시어머니는 우리와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눠주셨다. 그때마다 거부감이 심하게 들었다.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보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갔다.

교회에 두 번째 간 날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지금 내가 왜 울고 있지?’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뒤로 아무 이유 없이 교회에 가고 싶어

졌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 힘든 날은 나도 모르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내게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한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내 삶이 180도 달라졌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나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단점보다 장점을 아끼고 사랑하며, 빛나게 쓰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린 시절 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시어머니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울부짖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가정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은혜와 축복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한다.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오성민 순장(부천온누리교회)

순장, 그 아름다운 사명

올해 초 순장님의 사정으로 내가 갑자기 순장을 맡게 되었다. 아무런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맡게 된 순장 자리는 부담스럽고 무거웠다. 2학기 순장학교가 개강했다. 몇 년 전 순장님이 순장학교에 참여해보라고 제안하셨는데 거절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순장학교에서 배우고 준비했다면 지금 수월했을 텐데 아쉬움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순장학교 참가신청을 했다. 10주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첫째, 순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순장으로 세워진 과정이 어색했음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순장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가끔 하던 큐티를 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려 노력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삶으로 변했다. 나를 순장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둘째, 순장의 사명을 알게 되었다. 순장은 단순히 매주 순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원 한 사람, 한 가정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순예배 시작 전후 몇 시간만 순장으로 살았음을 깨닫고 회개했다. 순장은 일주일 내내 순장으로 살아야 한다. 순원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순예배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 순은 궁극적으로 삶을 나누면서 은혜받고,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공간이다.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다. 따뜻한 사람이 넘쳐서 참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곳이 되어야 한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순장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나가면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인도 해주실 것이다. 순원들을 늘 생각하는 순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순원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사랑이 샘솟고, 눈물이 나는 순장이 되기를 기도한다.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유예랑 자매(여호수아청년부)

날마다 새 힘을 주셨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신앙고백을 수없이 해왔고,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던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쳤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 사람에 대한 회의감, 행복하지 않은 현실의 막막함으로 인해 우울증이 왔다. 우울증에 걸린 나를 정죄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어느 순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속 빈 강정 같은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싶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읽었던 것을 회개했다. 변화된 삶을 갈구하던 그때 순장님의 권유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생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처음 글을 배우듯 한 글자 한 글자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었다. 순수한 자세와 간절한 심정으로 임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도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의 자녀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 영적 기본 원리를

귀로 듣고 말로 표현하고 마음 깊이 깨달았다. 영적 기본 원리들을 무시한 채 오직 은혜와 축복만 구하며 살았던 나에게 몇 년 동안 풀리지 않는 고난을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덮어놓고 외면했던 신앙고민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풀렸다.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감사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과 대화를 원하셨다. 일대일제자양육의 과제인 큐티로 아침을 시작했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나의 영과 육신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 일대일제자양육과 동시에 첫 사회생활을 하던 때라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서 치열하고 냉정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대로 살 수 있었다. 과제하는 시간도 은혜였다.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셨다.

일대일제자양육을 추천해주신 순장님, 매주 나를 축복해주신 양육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신앙 성장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로칼럼

사명을 가슴에 새기다



김영욱 장로
(성북공동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부르셨을까?”

장로사관학교 훈련 기간 내내 끊임 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던진 질문이다. 나는 대학교수로 정년퇴직하면 세계를 여행하며 여유 있는 삶을 꿈꾸었다. 아내

와 함께 마음껏 취미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하신 공동체 목사님과 장로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특히 아내의 기도는 내가 장로로 장립 받는 용기를 주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읍바 항구로 내려가던 요나 같은 나를 붙잡아서 돌이키게 하고 다시 세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시작한 장로사관학교는 특수부대 훈련소에 입소한 것 같은 강도 높은 영성 훈련이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열린 장로사관학교에서는 여러 강의와 조별 나눔이 진행됐다. 매주 강의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했고, 한 달에 두 권씩 총 11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했다. 36편의 기록 OTT ‘풍당’ 콘텐츠를 시청하고 과제물을 제출하면서 제자의 영성과 하용조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깊이 있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7개월 동안 이어진 장로사관학교 훈련과정은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희미한 기억을 소환했다. 타성에 젖어있던 신앙생활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무엇보다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 선배 장로

님의 따뜻한 미소를 잊을 수 없다. 여름에 진행한 캠퍼스 교회와 사역지 탐방은 온누리교회 비전과 다양한 사역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온누리교회가 하나의 큰 공동체임을 새삼 알게 되었다.

부족한 나에게 장로라는 과분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장로로서의 사명을 가슴에 새겼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비전을 따르며, 그 믿음을 본받으며, 겸손히 섬기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자원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며, 아내에게 인정받으며, 직장에서는 따르고 싶은 모범이 되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자리에는 어느 곳이든 아멘으로 참여하는 순종하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딤후 4:7-8).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생애를 마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내 대답은 무조건 “예스(Yes)”



김미숙 권사
(부천온누리교회)

권사 임직을 받았다. 권사라는 직분을 받기에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기에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3년 전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순종하기로 했다. 3년 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조건 “예스(Yes)”

하기로 약속했다.

3년 전 공동체에서 몽골 아웃리치를 갔다. 팀장님께서 첫 미팅에서 내게 중보기도팀장을 맡아달라 부탁하셨다. 그때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노(No)”라고 대답했다. 거둬들이는 부탁에도 이런저런 사정을 대면서 절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 해 아웃리치는 준비 기간뿐만 아니라 사역 중에도 정말 힘들었다.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아팠다. 뭘 먹기만 하면 체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급기야 팀장님이 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늘어났다.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던 아웃리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라고 물었다. 하나님이 “너 때문이야”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대답에 화들짝 놀라며 “왜요?”라고 반문했다. 그랬더니 내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던 팀장님의 제안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바닥에 구르는 돌로도 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일을 너와 함께하고 싶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길가의 돌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싶으셨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죄송스러울 수가 없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친 오만함을

회개했다. 곧장 팀장님께 전화 드려 사과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순종하고 있다. 나와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도 무조건 내 대답은 “예스”다.

7년 전 집사 안수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 혼났던 기억이 있다. 그때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직분 받기를 꺼렸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릇을 빚고 판단하는 나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셔서,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안수집사 임직을 받았다. 안수집사 임직을 받기 위해 순예배, 일대일제자양육, 큐티스쿨 등 여러 양육을 받으면서 내 삶이 바뀌었다. 늘 경제적인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던 내가 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굳어 있던 표정과 날이 서 있던 언어도 달라졌다. 나는 바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뀌주셨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은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마땅한 그릇, 마땅히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순종하면 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깨달았더니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었다. 여전히 나는 자격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권사 직분을 받았다.

권사는 공동체에 연약하고, 아프고, 믿음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돕는 사람이다. 공동체 식구들이 말하지 못하는 아픔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시선이 머무르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힘쓰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도 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듯이 나 역시 공동체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들여다보면서 섬기고자 한다.

신앙에세이



김성웅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나에게는 7살 아들과 5살 딸이 있다.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이면 두 아이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아빠, 빨리 들어와요. 우리 놀아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거실이 놀이터가 된다. 그 작은 공간에서 가장 먼저 하는 놀이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이다. 아이들은 내가 술래를 하면 이기기 위해서 조용히 다가오다가 내 소리에 맞춰 멈춘다. 한 명이 움직이다가 걸리면 술래인 내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을 건다. 그리고 걸리지 않은 다른 아이가 손가락 연결을 끊어주기를 기다린다. 이 놀이는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다.

어느 날 유튜브 추천 동영상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한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내용이었다. 그 게임 중 하나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좋아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다.

첫째, ‘죽음’의 의미에 대한 묵상이다. 그 드라마에서는 죽음이 무가치하고 가볍게 그려지고 있다. 455명이나 죽는데 죽음이 너무 쉽고 가볍게 그려지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하고, 그 생명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영상을 본 사람 중에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고, 드라마에 나오는 추억의 놀이가 이슈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그리는 죽음에 익숙해졌다. 그 드라마가 돈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 현실의 어려움과 사회적 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층화 등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죽음의 가벼움뿐이다.

둘째, 선한 것이 악하게 표현되는 것에 대한 묵상이다.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줄다리기, 달고나 등을 생각할 때 연상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렸을 때 친구들과의 추억과 행복일지 아니면 죽음과 경쟁이라는 이미지일지 생각하게 되었다. 미디어와 영상물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성적분별력을 약화시키기도 하며,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한다.

‘죄’는 ‘과녁을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과녁으로 가지 않는 것들은 모두 죄다. 죄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비틀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악으로 변질시킨다. 이 땅에 주신 아름다운 생명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성(性)을 변질시키며, 질서를

엎게 만드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다. 이것들은 교묘하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든다.

하지만 복음은 비틀어진 세상을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킨다. 선한 것이 선하게 되고, 악한 것은 악하게 되고, 생명과 죽음은 소중한 것이고, 성은 창조 모습 그대로 여겨지게 만든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목적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의 비틀어진 부분을 바르게 펴는 것이다.

다시 자녀들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묵인 새끼손가락을 끊을 때 “십자가”를 외치면서 하자고 놀이 방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죄의 묶임이 십자가로 인해서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갈 5:1).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자유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단 한 가지 금지명령 외에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단 한 가지 금지명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질서 아래서만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도전, 반역,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자율적인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칙, 법칙, 제도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는 하나님 없는 자율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휩쓰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부정합니다. 어떻게든 창조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 질서도 바꾸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주어진 질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을 부여하겠다는 사회적 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제한과 규칙,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질서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질서에 기쁘게 순응할수록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심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했습니다. 죄의 종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자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별 받

을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거워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셋째,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13~15절).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려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유의 방향과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없는 양심의 자유,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하는 자유의 열매는 이웃을 향하여 서로 종노릇 하는 자유입니다.

고린도교회에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혹시 고기에 귀신이 붙어 있지 않을까 싶어 먹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럴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의 마음을 시험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에 영향을 준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배려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에서는 상반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고, 디도는 하지 않게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관습이나 유대 문화 때문에 디모데가 따돌림을 당할까 봐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통해 의롭게 된다는 잘못된 신앙의 변질이 있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유의 방향입니다.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데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자발적으로 나타난 사랑이어야 합니다. 강요된 섬김은 섬김일 수 없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에서 나온 사랑, 자유에서 나온 섬김으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의롭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로운 선택과 사랑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강요나 억울함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데 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자유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사랑으로 그의 이웃 안에서 산다. 믿음에 의하여 그는 그 자신 이상으로 하나님에게 올리워지며 사랑에 의하여 그는 그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로 내려간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사랑 가운데 머문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웃에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저출산 문제, 교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김선애 장로
(가정사역공동체)

“저출산 충격 보고서 ... 100년 후 서울 강남, 광진, 관악, 마포만 생존.”
지난 8월 한 일간지 뉴스 헤드라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117년에는 1,510만 명에 불과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다. 전국 대도시도 도시가 고령 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 비율이 02명도 안 되는 이른바 ‘소멸단계’에 진입한다.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결과보고서’가 그런 100년 후 한국의 우울한 모습이다.

2006년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먼(인류학자)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민족이 한국이라고 발표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1.13이었다. 그는 출산율이 변하지 않으면

2300년이 되면 한국 국민의 수가 5만 명(여자 3만, 남자 2만)이 된다고 예측했다. 한국의 현재 출산율은 0.83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 부르짖으며 원망할 때 바위에서 물을 얻었다. 삼손이 갈증이 심해져서 하나님께 간청해서 솥아 나온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회복한 것 같이 우리도 울부짖어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저버리고 민족이 소멸해가는 것에 대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올해만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46조 원을 썼다.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가정사역자로서 저출산 대책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혼하고 싶은 환경, 결혼해서 일을 구할 수 있는 환경, 보금자리(집)를 구할 수 있는 환경, 아이를 낳으면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아이들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그것이다.

1945년 해방되던 때만 해도 한반도 인구가 2

천만 명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 남북한 인구를 7천5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과 70년 사이 인구가 4배 증가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적용된 축복받은 나라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15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기우로 그칠 줄 알았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 공포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국가적인 위기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양육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저출산을 막고자 15년 동안 225조 원을 들였다. 그러나 출산율은 계속 줄고 있다. 재정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제라도 종교계가 나서야 한다. 기독교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사회복지 영역에서 첨병 역할을 해오면서 지역사회에 공

헌해왔다. 기독교는 섬김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회가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5만 개 한국 교회가 발 벗고 나서서 영유아 양육에 헌신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안심하고 맡기는 방법, 중년층을 재교육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취업하는 기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차별화된 어린이 보육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하면 교회도 부흥한다.

저출산 문제는 교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아니 찾아내야만 한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이 ‘새마을운동’ 같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운동(Movement)을 일으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일을 섬기는 ‘행가래(幸家來)’ 사역팀이 있다. 나름대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단법인 행가래를 만들어서 사회로 나갈 준비도 하고 있다. 여러 리더십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다.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더멋진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2022년에도 땅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2021년 더멋진세상이
찾아간 전세계 이웃**
(현 25개국 진행, 누적 37개국)

아프리카 세네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르완다, 우간다,
말라위, 남수단,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아 시 아 몽골,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중 동 요르단, 레바논
중 남 미 멕시코,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동 유 럽 몰도바, 우크라이나

더멋진세상의 발걸음에 지금 동참해 주세요!

후원하기

계좌 하나은행 573-910010-69205
(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6 (내선 0번)



◀ 정기후원
바로가기



◀ 2021 가을호
소식지

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개발 NGO입니다.